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18-1차	일자	2021.04.11. 20:00	장소	ZOOM 화상회의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O	O	X	O	X	X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O	X	O	O	O	O	8/13

1 논의안건

1. 중앙운영위원회 입장문 작성 여부

- 총학생회 회칙 제13조 해석과 관련하여 중운위 입장문 작성 여부 논의

총: 중앙운영위원회 입장문 작성 여부. 총학생회칙 제 13조 1항과 2항의 해석 여부를 담은 입장문 작성 여부에 대해 의견주시기 바람.

인문.정: 총 말씀에 따르면 지난번 긴급 중운위에서 2차 학생총회를 여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맞는지?

총: 맞음.

인문.정: 당일 날 학우분들께서 중운위가 회칙 13조를 왜 3일 이내 소집으로 해석했는지에 의문 주었음. 회칙 해석이 나뉜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학우분들이 인지하는 상황으로 파악. 그런데 학우분들이 3일 이내 개최에 의문을 가지고 지적한 것은, 중운위가 학생총회 개최에 분명한 의지가 있었느냐라는 의문이고 결론이 그렇게 귀결된걸로 저희는 파악함. 인문대는 회칙 해석에 있어서 중운위가 따로 입장을 작성하기보다 2차 총회를 개의하기로 결정했고 총회 성사를 위해 중운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 이것에 대한 입장문은 따로 작성 안 해도 된다는 생각임.

총: 개인적으로 당시 학우분들께서 왜 중운위가 임의적으로 회칙을 해석했냐는 문제제기 했던 것으로 기억함. 그래서 입장문을 작성할 때는 그 경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 입장. 다른 대표자분들 의견 주시기 바람.

부총: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처럼 어떤 해석으로 3일 이내 개회 결정에 도달했는지와 방금 인문대 학생회장 말씀처럼 앞으로 2차 학생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위문 정도 작성하는 것으로 회장단은 생각하고 있음.

인문.정: 총, 부총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 무슨 말인지 앎. 그러면 제안을 해보는 것이 부총 말씀처럼 일단은 13조를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초반에 쓴 다음에 2차 학생총회를 개의하겠다. 그리고 성사를 위해 중운위와 총학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개요문을 작성함이 어떨지 제안드림.

총: 총학생회장 동의. 다른 대표자분들 의견 내주시기 바람.

사과.정: 사과대 단운위 통해 취합한 의견 말씀드림. 단운위 통해 취합된 의견 그대로 전달한다는 점 양해 바람. 우선 단운위에서는 총회 현장에서 의장단이 해당 사항 충분히 설명 못 했다면 그에 따른 비판을 온전히 받는 것이 옳고,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항을 지금 시점에서 입장문으로 발행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또 학생총회 전반의 문제점을 포함해 입장문을 발행할 수는 있으나 13조에 대한 이야기만 담는 입장문은 반대했다. 혹여 발행하더라도 중운위가 아닌 의장단 이름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부총: 일단 그때 자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크게 2가지. 3일 이내 개회 결정한 경위와 회칙 해석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진행과 홍보상의 미흡. 후자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적절한 방법의 사과문 고려중. 전자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었기에 학생사회에 설명하는 과정이 하나 있어야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 이에 대해 사과대 회장님 추가 말씀 있으실지?

경경.정: 경경대는 인문대 회장님 의견에 동의하며 당시 총회를 참여했을 때 그 내용이 나올 때의 개인적 의견을 말하자면, 3일이라고 해석하게 된 것은 중운위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당시 중운위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의장단이 그 경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 입장문 내는 것은 좋지만 다음 번 총회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 의장단이 중운위에서 나온 내용을 설명해주었으면 좋겠음.

부총: 관련해서 사실 그 자리에서 왜 3일 내로 했는지, 회칙 해석이나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개최함이 학우분들의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으로서 3일 내 개회를 결정했다고 기억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위원분들 말씀 보니 설명이 미흡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음.

간호.정: 간호대 질문 있음. 2차 학생총회가 개회를 하려면 소집이 되어야 되는데 소집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총: 당시 2차 총회를 기획하라는 투표에서 약 600여명 이상의 학우분들이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총학생회칙 제13조 1항 회원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라는 조항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함. 따라서 2차 학생총회를 기획하는 것이 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함.

간호.정: 안건지를 보면 첫 번째 긴급 중운위를 통해 세 가지 안건을 채택하고 신속히 대학본부와 이에 대한 교섭에 돌입한다가 673명중 632명 찬성이고 5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 내에 그게 이제 2차 총회 개회인데 그게 325명밖에 참여를 하지 않은 투표로 알고 있음. 그리고 자유토론의 장으로 알고 있음. 1차 학생총회가 무산되고 자유토론의 장에서 가결된 투표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저는 2번 안건에서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자는 논의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총: 우선 2번 투표가 2차 학생총회를 기획하라인데 해당 투표에서 찬성명수가 649명이다. 600여명의 수치는 총학생회칙에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그런데 간호대 회장님께서는 실효성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간호.정: 그게 총회 소집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일단 중운위 입장문 작성에 대해, 무산 전에 중운위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경위를 담은 입장문인지 2차 총회 개의를 위한 새로운 해석을 담은 입장문인지 정했으면 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총회 개회하려면 소집권한이 있는 주체가 소집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충족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당시 3월 22일 15차 회의에서 13조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음. 이게 소집 3일 이내냐 공고 10일이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냐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논의 결과로 500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 3일 이내 소집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 3일로 정해짐. 개인적으로 회칙 해석한 바는, 회칙에 따르면 3일 이내 반드시 소집되어야 하는 상황이 중운위, 전학대회의 요구, 회원 500인 이상의 요구,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총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는 별도의 공고, 소집 일자가 정해지지 않는 걸로 회칙에 명시됨. 결국 2항 학생총회 공고는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어디 해당되는지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 22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보지 못하고 3일 이내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3일로 해석 결과가 도출됐다고 생각함.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가야 2차 총회를 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함.

부총: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답은 안 되겠으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있음. 만약 2차 총회를 개회하면 회칙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석함이 아니라 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총회를 개회한다는 수순으로 개회할 것 같음. 그러니까 2차 총회 개의 시 주체는 총학생회장이 되는 것인데, 500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시 무산된 총회가 신원확인을 다 거친 상태에서 600인의 찬성표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효력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학우 500인 연서명으로 인한 학생총회냐라고 보긴 애매한 측면이 있음. 중그런데 중요한 것은 600인 이상의 학생들이 총회 개회를 요구했다는 것이고, 해석에 따르면 500인 이상 요구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총회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됨. 그 정도의 근거로 설명드리는 것임. 아무튼 개

의는 의장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수 논의는 또 3일, 10일 이 논의를 하진 않을 것이고 이는 어떻게 해석하든 이중성이 남아있어 전학대회 때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사과.정: 사과대 드릴 말씀 있음. 학생총회에서 진행된 투표가 4가지인데 간호대에서는 2번 투표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4번 투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총에서는 2번 투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음. 학생총회 안건지에도 1, 2, 4번만 적혀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음. 그래서 저렇게 4가지 투표가 진행되었고 의장단에서 말씀하신 것은 2번 투표와 관련해서 500명 이상이 있었는데 해당 투표가 가결되었기 때문에 학생총회가 개회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간호.정: 제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2차 총회를 개의하면 좋을 것으로 의견을 드린 것은, 500인이 어쨌건 말씀처럼 투표에서 가결됐지만 연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다분하다는 것 동의함. 그렇게 된다면 또 3일 이내 소집해야 하는데 다른 대학 총학생회칙도 찾아보았는데 1항이 애초에 단서조항이어서 문제가 있어, 부총 말씀처럼 전학대회에서 개정해야 하는 부분인 것도 맞음. 그런데 문제는 회칙 상으로 3일 이내 소집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학우분들도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보다는 일정이 명시되지 않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하면 충분한 기간이 마련될 것 같아 말씀드림.

총: 말씀대로 학우분들의 투표를 회원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라는 회칙에 적용하면 또 다시 저번처럼 3일, 10일 해석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총학생회장 권한으로 소집해서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총회를 준비하는 것이 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함. 일단 논의가 좀 벗어났는데 우선은 입장문 작성 여부를 논의하고 다음 논의안건으로 넘어가겠음.

부총: 간호대에서 두 가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논의가 이어졌는데, 아무튼 2차 총회는 개의한다가 중론이고 이걸 토대로 입장문 작성 여부를 논의하면 되겠음.

총: 작성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회칙 제13조가 회칙 자체에 오류가 있고 이 오류로 해석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운위에서도 3일 이내 소집 경위를 밝히는 것이 학우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입장문 작성을 말씀드리는 것임.

인문.정: 인문대학 입장 다시 말씀드리면 회칙 해석 경위만 담은 입장문은 안 쓰는게 낫다는 것이고, 2차 총회를 열겠다는 입장문을 쓰고 그 전에 경위를 설명하든 회칙 해석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괜찮다는 생각임.

총: 저도 아까 동의 말씀 드림. 다른 대표자분들 의견 주시기 바람.

통공.정: 공대도 인문대 학생회장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함.

인문.정: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학우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회칙 해석이 아니라 2차 학생총회를 열겠다라는 중운위와 총학생회의 의지를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입장문을 쓰자고 말씀드림.

총: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나 자유토의 당시 학우분들께서 중운위가 왜 임의적으로 해석했느냐는 문제제기 또한 있었기에 중운위 차원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해석 경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문대 학생회장님 말씀대로 해석 경위와 더불어 2차 총회 개회에 대한 의지표현이랄까 그것도 함께 포함해서 입장문을 작성함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임. 다른 대표자분들 의견도 주시기 바람.

부총: 동의나 비동의로 의견을 주시면 논의가 더 빠를 것 같음.

사과.부: 사과대도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회칙 해석에 대한 경위만 담은 입장문 발행은 반대함. 저희가 중운위 회의록에 회칙 해석을 왜 그렇게 했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3일 이내로 개의한다는 것이 다 담겨있고, 실상 총회에서 그것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해 학우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음. 인문대 말씀처럼 회칙해석에 대한 학우분들의 오해를 푸는 입장문만 발행함은 반대함.

부총: 인문대하고 회장단이 제시한 안은 찬성하실지? 저희도 똑같이 2차총회 개의를 하겠다는 것을 표명함과 동시에 지난 토의 과정에서 있었던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쓰자는 말씀이었음.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나머지 단위에서 동의, 비동의 의견 밝혀주시기 바람.

사과.부: 추가적으로 2차 총회 의지 피력하는 입장문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1차 총회 전반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입장문 발행하는 것 다른 중운위원분들 의견 묻고싶음.

총: 어떠한 피드백인지?

사과.정: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고 사과대는 지난 단운위 회의를 통해 피드백 내용을 아예 받음. 안건으로 상정해 받았음. 예를 들어 총학과 중운위의 홍보부족, 특별자치기구 홍보물 게시를 삭제 요청했던 검열문제, 준비되지 않은 속기록, 학생총회 정족수 미치지 못한 행정적 준비, 중운위 회칙 해석을 의결 아닌 구두합의했던 점, 자유토의 중 통과안건 부재로 발생한 절차적 문제, 중운위 결정이라는 답을 반복한 태도, 중운위원 참석율 저조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있어서 단운위 차원에서 피드백 수합해서 1차 총회 전반에 대한 입장문 발행되는 것은 좋고, 회칙 해석에 대한 입장문은 큰 효용이 없다는 생각임.

부총: 방금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 홍보 부족, 검열 문제, 속기록, 행정적 미비, 구두합의로 결정한 점, 중운위원의 참석율이 저조한 점 나열해서 미흡함이 있었고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문을 적자는 말씀인지? 만약에 쓴다고 하면 중운위 차원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걸 나열한다고 하면 중운위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말하는 건지?

사과.정: 학생총회 참가 시 느꼈던 점은 13조 1항에 대한 학우들의 비판도 있었지만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단운위 회의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들이 나왔다고 생각함. 특히 게시물 삭제 요청이라든지 속기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13조 1항의 해석의 여지 못지않게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문의 뉘앙스는 13조 1항을 다루는 것만큼 다른 소재도 다뤄야 한다는 입장임. 그래서 1차 총회 피드백에 대한 중운위, 총학의 입장 그 아래 2차 총회는 이런 점을 개선해 학우들 의견이 원활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2차 총회의 의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총: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진행 미흡은 총학 차원에서 사과문 작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 말씀한 검열의 문제는 중운위 문제가 아니라 총학생회장단 산하기구인 성평위 문제이기 때문에 중운위 입장문에 포함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사과.부: 혹시 발행하게 되면 총학 사과문과 중운위 입장문이 같은 날 게시되는지?

총: 게시일은 논의한 바 없다.

인문.정: 그렇다면 사과대 말씀 충분히 일리있다고 생각. 다시 절충안을 만들자면 학우분들께서 주신 피드백 중 중운위 피드백이 많았으므로 중운위 피드백을 전반적으로 입장문에 작성하고, 후반부에 이 점을 보완해 2차 총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방향으로 입장문을 쓰면 어떨지? 저희 단운위에서도 회칙 해석에 대해서만 입장문 따로 쓸 필요 있을까 의문 많았음. 차라리 사과대 말씀처럼 중운위에 해주신 전반적인 피드백 내용을 담고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의 입장문 쓰는 건 어떨지? 피드백을 먼저 담고 앞으로 하겠다가 입장문 쓰기에도 훨씬 좋을 것 같음. 회칙 해석 이렇게 했다 하고 2차 총회 잘 준비하겠다고 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 사과대 말씀과 2차 총회 열겠다는 총학생회장단 의견들 절충해서 내면 더 깔끔할 것 같다.

총: 인문대 회장님 말씀하시는 중운위 피드백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지?

인문.정: 사과대 피드백 중 중운위 해당 내용이 전부 피드백일것같음. 일일이 기억 못하지만 중운위 참석이 아쉬웠다든지, 홍보에 있어 총학도 부족할 수 있지만 사전에 요구하지 못한 중운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 것들, 회칙 해석 등 여러한 점들 함께 기술하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림.

간호.정: 간호대 말씀드려도 될지?

총: 네

간호.정: 중운위가 학생총회 전반에 있어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 중운위에 관련된 것은 오직 총회 소집과 관련해 요구가 있을 때 소집이 가능하다는 것 밖에 없고 진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그런 피드백을 입장문에 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임. 그래서 지난 경위에 대한 설명으로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이 입장문에 맞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의견임.

사과.부: 간호대 회장님 말씀하신 진행 관련 피드백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과대에서 생각할 때 중운위 내에서 각 단과대에 홍보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중운위원 참석율 저조도 일반 학우들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피드백이라고 생각. 그리고 회칙 해석을 구두로 합의한 것과 자유토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얘기되었던 점에 대해서만 입장문 발행해도 중운위 관련 피드백에 대한 입장문을 잘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 정도의 피드백은 중운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부총: 회칙 해석, 홍보 부족, 중운위원 참석, 자유토의 진행 관련 논의 사항을 담고 다음에 이를 보완해서 2차 총회에 최선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이 정리되는 것 같음. 이에 대해 더 의견 표명하실 단위 있으면 표명 바라고, 경위문이나 전체적으로 의견 주셔도 됨.

경경.정: 입장문에 홍보 부분과 경위 같은 경우 추가될 사항이 맞으나 중운위 현장 참석은 입장문에 담아도 될 사항인지에 경경대는 동의하지 않아 현장 참석 관련 내용은 제외했으면 좋겠다.

총: 저도 중운위 참석율 저조가 입장문에 들어가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임. 회칙 상 중운위 참석 퍼센트 조항이 없을뿐더러 학우분들이 중운위 참석 저조를 말씀하신 경위가 제가 모든 내용을 중운위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을 하니 그러면 중운위가 와서 같이 설명하면 좋았겠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함. 중운위 참석 저조 문제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사과.정: 사과대 동의함.

인문.정: 인문대 동의함.

통공.정: 부총 정리해주신 내용 한 번 더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부총: 방금 논의로 빠진 내용 제외하고, 회칙 결정과 자유토의 관련한 결정의 문제와, 회칙 결정에는 회칙 해석의 문제와 구두합의로 진행했다는 문제, 그리고 홍보 부족 문제.

통공.정: 생각이 길어져 말을 못하고 있었음. 저희가 사과문이나 반성문이 아니라 입장문을 게시하는 것. 그러다보니 홍보 부족의 문제는 회칙 해석의 문제와 연관된다고 생각함. 회칙 해석을 3일로 했으면 그 안에 홍보가 불가능하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 그래서 홍보 부족 문제는 빼도 된다고 생각. 저도 학우분들이 원하는 궁금증 최대한 실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뭔가 사족이 붙는 것 같아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회칙 해석의 문제를 실으면 당연히 3일 내 홍보 불가능한 건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니 자연스레 그 문제도 해결될 것.

경경.정: 공대 회장님 말씀은 알겠으나 저희가 3일로 결정한 것은 회칙에 모호성이 있어 해석을 하면서 3일로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고, 그것으로 홍보가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3일 동안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맞기 때문에 홍보 부족 또한 입장문에서 얘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 다음 총회가 3일 이내 이루어질 경우에도 3일동안 홍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홍보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

인문.정: 경경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함.

사과.정: 사과대는 회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운위가 중운위 차원 입장문 작성에 부정적인 의견이다. 왜 쓰는 지 잘 모르겠으나 꼭 써야 한다면 중운위가 지적받은 사항 중 홍보 부족이 있기 때문에 홍보 부족을 이야기한 것. 3일 동안이라도 소집 공고나 총회 관련 게시물을 단운위 통해 각 학과/부로 내렸으면 학우들이 이번처럼의 홍보부족이라고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서, 3일 동안에 최선의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어느정도 동의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 들어갔으면 좋겠음.

간호.정: 사과대 회장님 말씀에 동의함. 계속 중운위에 권한이 없다고 드린 말씀이 사과대 회장님 처음 말씀과 맞는 말을 다시 얘기드리고 싶었음.

총: 정리를 하겠음. 입장문 작성하며 입장문에 회칙13조 해석 경위와 자유토의, 총회 무산 시 자유토의 진행 여부에 대한 중운위 결정, 2차 학생총회 개의 의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입장문 발행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

하는지 최종적으로 의견 묻겠음. 홍보까지.

인문.정: 그것만 쓰는지?

총: 방금까지 논의된 것이 이게 아닌지?

간호.정: 중운위 입장문 작성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인문.정: 제가 이야기한 바로는 피드백을 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까지 담겨야 진정한 입장문이라고 생각. 그걸 말씀드린 것.

총: 네. 그래서 2차 학생총회 개의 말씀해주신 내용들 다 포함되는 것임.

부총: 그러면 저희가 여부를 논의하다 세부적인 작성안까지 다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회칙 자유토의 홍보부족 2차 총회 개의 의지 이 네 가지를 담은 입장문을 쓴다와 그냥 쓰지 않는다로 나누어 이야기해주시면 결정이 빠를 것.

부총: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면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이나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

총: 의결까진 아니라도 그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쓴다에 대한 투표 진행하겠음.

경경.정: 죄송한데 투표 진행 전에 회칙, 자유토의, 홍보부족, 2차 총회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자유토의 관련한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총: 학생총회 무산 시 자유토의 해달라는 탈곡기 측의 제안이 있었음. 중운위는 학생총회를 참가하신 학우분들 대상으로 자유토의에 참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 필수적인 이행 의무가 없다고 해서 중운위가 결정한 것 같은데 자유토의 자리에서 학우분들이 왜 중운위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그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내용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부총: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이 점은 이미 그 자리에서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는 점과 다음 총회 진행시에는 지적을 받았으니 변경이 되어야 함.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입장문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총: 변경보다는 저희가 해석한 게 자유토의 참가시키는 것이 회칙에 명시된 바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2차 총회 개의가 무산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는 또 한 번 중운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부총: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건 이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만 알려드린다면 그것 또한 학우분들께 새로운 의문을 제공하는 것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면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 결정보다는 그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입장문에 반영하는 게 내용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함.

총: 그럼 투표 진행 전에 2차 총회 무산 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고 입장문 작성 여부에 대해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음.

인문.정: 그러면 밑에 안건 2번을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닌지?

총: 무산 시 동일 안건으로 총투표 시행한다는 투표 때문에 말씀하신 것인지?

인문.정: 네.

총: 거기서 말하는 총투표는 총회 하위 의결기구인 총투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토의는 총회 무산 후 당일 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임.

인문.정: 2차 총회 당일 무산 시 자유토의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인지?

총: 맞다.

인문.정: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함.

총: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회 무산 시 자유토의 진행할 의무가 없고 자유토의가

진행되면 총학생회장단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산적인 논의가 오가지 않는다고 생각. 따라서 총회는 무산을 하고 그 다음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총: 다른 대표자분들 의견 주시기 바람.

경경.정: 경경대는 총회가 무산되고 자유토의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 또 학생회가 진행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 따라서 총회가 무산되었으면 무산되었다고 하고 그 줌은 닫고 이후에 참석하신 학우분들께서 자유토의를 원하시면 따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동연.부: 동연도 경경대에 동의. 자유토의 진행이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임.

총: 그러면 경경대 회장님 말씀이 절충안이 되겠다. 왜냐하면 총회가 무산되면 총학생회장은 의장 권한이 없다. 따라서 따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총회 무산 후 동일 플랫폼으로 유지하고 자유토의를 하는 것은 반대임.

부총: 경경대 의견 다시 정리하면, 총회 무산은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자유토의를 희망하는 인원을 집계하고 그 인원을 대상으로, 즉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에서 비참여대상을 뺀다든지 방을 판다든지 해서 자유토의 인원을 이동시키는 걸 말씀하시는지?

경경.정: 방법까지 저희가 논의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말씀드리는 건 자유토의 관련 부분은 저희가 논의할 사항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 드렸음.

통공.부: 공대 부학생회장임. 공대 학생회장과 이야기를 다 나눠본 것은 아니지만 경경대 말씀에 동의하는게, 총회가 열리려면 일정 충족하는 요건이 필요하고 해당 부분을 만족하지 못해서 총회가 무산되었으면 총학이나 중운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고 생각함. 물론 그것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 부족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입장문에 그 부분을 포함한다고 생각. 말 그대로 자유토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총학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만일 자유토의를 하고 싶다면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플랫폼을 구축해서 줌이든 라이브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희가 이걸 하라 마라 하는게 웃긴 것 같음 자유토의인데. 저는 굳이 총학이 계속 줌 방을 파서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음.

사과.정: 사과대 의견 말씀드리면 자유토의를 이번에 진행했을 때 혼란스럽고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됐다는데 동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 의장단인 총학생회장단도 부담을 느꼈을 것 같음. 그런데 제 생각에 이번 학생총회를 제가 여섯시 반부터 새벽까지 참석했는데 저희가 소집정족수 3159명이 미달이 되면 폐회를 한다, 자유토의 시간은 없는 것으로 중운위가 합의했다는 의견에 대해 한 7시경부터 8시까지 학생들의 자유토의 요구가 계속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자유토의를 진행함. 그래서 저는 통과안건을 잘 갖춰서 2차 총회가 무산되더라도 자유토의를 하는 것이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게 중운위나 총학생회장단의 의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으나 1차 총회에서 자유토의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를 본 상황에서 그 요구를 무시하는 그림이 될 것 같음. 그걸 무시하는 건 학생대표자로서 할 역할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통과안건을 가지고 자유토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임.

총: 통과 안건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생총회에서 의결이 진행되고 가결이 되어야 함. 따라서 자유토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학생총회가 무산된 경우에서 통과 안건이 과연 효력을 가질지에 대해 의문이 있음.

사과.정: 의결에 대한 통과 안건의 네이밍이 아니더라도 자유토의에 대한 규칙, 합의점 등을 조정하면 좋을 것 같음. 통과안건을 꼭 갖춰야 한다는 것은 아님. 이번에 자율 토의에 있어 정리가 안 된 상황을 생각하여 토의에 대한 규칙 정도로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하는 의견임. 많은 학우들이 모였는데 학생총회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셨는데 자유토의를 아예 진행하지 않으면 큰 반발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음. 의무는 아니지만 했으면 좋겠음.

총: 사과대 학생회장님의 말씀처럼 자유토의에 대한 규칙이 확립이 되고 규칙대로 진행된다면 그것만큼 친선적인 회의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다만 우려되는 점은 자유토의 규칙을 중운위가 가안을 설정하는 점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학우분들의 문제 제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음. 사과대 학생회장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음.

통공.정: 공대 부학생회장과 저의 의견이 달라 공대에서 두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미리 전함. 총학생회장은 자유토의의 의장이 될 의무도 없으며 자유토의를 위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도 없긴 하나 사과대 학생회장님의 말씀처럼 학생 대표자로서 학우분들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는 결여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음. 따라서 자유토의에 중운위가 개입하는 것은 반대이지만 당일 시스템 정도는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림.

경경.정: 공대 학생회장님과 사과대 학생회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인지함. 그러나 개인적으로 총학생회 측에서 자유토의를 위해 당일 학생총회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자유토의에 완전히 배제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함. 그렇게 될 경우 자유토의 내에서 총학생회가 규정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등장할 수 있음. 실제로 이번 자유토의에서 자유토의인데 총학생회가 이런 규칙을 만들었냐 등의 말이 나왔음. 따라서 2차 학생총회 때 폐회할 경우 시스템을 남기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을 것 같음. 다만 마감하기 전에 자유토의에 대한 진행 의사가 있는 학우분들을 조사를 진행하고, 자유토의 의장을 모집한 후 그 분이 ZOOM을 구축하는 것에 있어 총학생회측에서 책임을 져주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함.

부총: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논의되어야 할 안건 4가지가 총학생회와 중운위 모두 해당이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학생총회 의장단이 아예 배제된 채로 자유토의를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자가 아예 빠진 채 논의를 하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자유토의에 대한 규칙을 확실히 설정하고 학생총회가 무산이 되었을 때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진행되면 어떨까 생각함. 자유토의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보다 자유토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음. 자유토의를 진행한다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자유토의 진행 시 규칙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임.

간호.정: 자유토의 진행 여부에 대한 중운위의 권한은 없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중운위 논의 결과가 자유토의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고 생각함. 무산이 되었을 시 토론의 장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그것을 반영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은 중운위에 없고 오로지 의장에게 있다고 생각하므로 왜 이에 대해 논의하는지 의문이 듦.

경경.정: 해당 내용에 동의함.

총: 학생총회가 무산이 되면 더이상 의장으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부분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음.

부총: 자유토의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사전에 모든 것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자유토의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지난 과정에서 자유토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학우분들의 많은 요구로 인해 진행되었으므로 아무런 토의에 대한 제반이 없어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었음. 따라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정해놓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여 중운위의 의견을 듣고자 함.

간호.정: 정정하겠음. 자유토의 진행 전까지는 의장이 아니라 총학생회장과 학생이라고 보고, 학생이 총학생회장에게 요구하여 자유토의가 진행되었다면 그것은 의장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의장이 사회자가 되는 형식이 되므로 중운위가 논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봄.

??(1:01:00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음. 간호대 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함. 학생총회 무산 시 총학생회장님이 의장으로서의 권한은 없지만 총학생회장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은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자유토의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총학생회장단에 요구하는 것이므로 중운위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총학생회장단의 의견이 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음.

경경.정: 추가 발언하겠음. 학생총회에서 학우분들이 자유토의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던 것은 중운위가 학생총회가 열리지 않길 바랬고 자유토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음. 하지만 중운위가 1차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던 것은 학우분들이 자유토의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중운위가 이에 대해 함부로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결과였음. 2차 총회에서도 해당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은 중운위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의결이 되었다는 것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자유토의에 대한 부분은 학생총회 구성원들이 결정할 문제임.

총: 입장문 작성시 지난 1차 학생총회 자유토의에 대한 중운위 결정에 대한 경위를 포함하고 2차 학생총회 무산 시 자유토의는 당시 참여한 총학생회장단과 구성원들의 합의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포함하는 것이 괜찮을지?

인문.정: 두 분의 의견이 모두 맞는 의견이고 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이 가장 맞는 결정인 것 같다고 생각함.

경경.정: 동의함.

총: 입장문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이것은 의결이 아니라 대표자분들의 의사 표현을 확인하기 위해서임.

찬성 6단위, 반대 0단위, 기권 2단위로 입장문을 쓰는 것으로 결정하겠음. 초안은 총학생회장단이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음. 그렇다면 언제까지 써야 좋을지?

부총: 저도 날짜를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인문.정: 두 분이 정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하나 너무 늦지 않게 일주일 정도로 하였으면 좋겠음.

총: 이번주까지 써서 피드백 받도록 하겠음.

부총: 이번주 금요일까지 초안을 쓰겠음. 여러분들이 재촉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의견을 물어본 것이었음.

통공.정: 입장문이 중운위 피드백을 통해 최종 게시가 되는 것인데 피드백 날짜는 언제가 되는 것인지?

총: 날짜가 정해져 있진 않음.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빠르게 해주실수록 게시가 빨라짐.

부총: 공대에서는 회의 내 피드백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서면을 통한 피드백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통공.정: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회의 내 피드백을 생각하였음. 그러나 시험 바로 전날이므로 부담이 크긴 함.

총: 대표자분들의 학업을 위해 19일은 시험 전날이므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였음. 회의가 아니더라도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카카오톡을 활용할 예정임.

2. 자유 토의 시 진행된 투표의 실효성 판단

- 긴급 중운위를 통해 세 가지 안건을 채택하고 신속히 대학 본부와 이에 대한 교섭에 돌입한다.

  677/632/16/29

- 학생총회의 무산 시 동일 안건으로 학생 총투표를 시행한다.

  449/429/7/13

- 5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 내에, 580여명이 발의한 세 개의 최초 의결 안건 + 중앙대학교 학생자치 전반에 대한 논의안건 네 가지 안건으로 2차총회를 개의한다.

322/304/9/9

총: 논의 안건 2번으로 넘어가겠음. 자유토의 시 진행된 투표의 실효성 판단에 대한 안건임. 총 4개의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 두 번째 진행된 투표인 2차 학생총회를 기획하라는 내용은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학생회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결정함. 따라서 나머지 3개의 투표에 대한 실효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경경.정: 인원 부족으로 학생총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600여명의 학우분들이 참석하고 발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음. 그러나 발의 이후 그 안에서 안건을 채택하고 대학 본부와 교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함. 발의는 자유이나 발의한 안건에 대한 채택 여부는 3000여명의 학우분들이 참여한 총회 혹은 학생총투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기존의 안건 채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생각임. 경경대에서는 발의한 안건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투표의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함.

인문.정: 기존 2학기 등록금 환불 진행 결과에 대해 학우분들이 학교 본부에 많은 불만을 표출함. 등록금 환불 협의체에서 학우분들의 설문조사 등의 의견을 들었으나 학교 본부 측의 재정 문제의 이유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음. 이에 학우분들의 의견 자체를 충분히 전개하지 못한 총학생회와 중운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또한 학생총회 진행에서 앞선 피드백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아 학생총회에 대해 총학생회와 중운위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중운위가 3가지 안건에 대해 실효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신속하게 이행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인문대의 입장임. 단위 내에서는 중운위가 실효성을 따질 입장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음.

총: 여러분들께 실효성 판단을 맡긴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음. 자유토의가 비공식 회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3가지 안건에 대한 책임 주체는 총학생회와 중운위라고 판단했으므로 실효성 판단 기준을 물어본 것임.

간호.정: 총학생회장님의 말씀처럼 학생총회가 무산된 이후의 토론의 장에서 이루어진 투표이므로 의결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가결이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함. 이는 회칙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임. 안건마다의 참여자 수가 상이하며 격차가 매우 큼. 자유토의에서의 투표는 의결로서 힘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임. 그러나 이는 학우분들의 요구로 강력하게 힘을 가진다고 생각함. 그래서 이것은 긴급으로 중운위 안건 채택해서 본부 교섭 바라는 학우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 각 단위 대표자들이나 중운위 위원으로서 이 요구 사항을 접한 이상 안건 상정해서 논의해야 하며 답변 드려야 한다고 생각. 3가지 투표 결과가 어떤 실효성 가지는지 보다, 1번 안건처럼 중운위가 대표자로서 요구사항 반영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논의하면 되는 것.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 요하는 상황이며 따라서 2차 회의를 제안 드림.

총 : 전적으로 동의. 학우분들이 요구를 하셨다는 것은 학우분들의 민심이라 생각. 학생총회 개회를 하고, 1번 투표 대한 교섭의 문제는 당장 요구안을 작성하여 간담회 추진과 같은 절차가 분명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 실효성 판단을 떠나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학생총회 무산 시 동일 안건으로 학생 총투표 시행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학생 총투표가 가지는 의의도 있겠지만, 그것을 진행하려면 큰 예산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학대회 안건 상정과 같은 다른 대체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표자분들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 4번째 투표, 5/3(월)~5/7(금) 내에 개회를 하라는 것도 실효성 고려했을 때 2차 총회가 빠른 시일 내로 열려야 한다는 것이 학우분들의 의견인 것 같다. 총학생회장으로서 이를 이해 및 인지하고 있으며 실효성 판단 떠나서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것이 총학생회장단의 의견.

사과.정 : 총 4가지 투표 중 2번, 학생 총회를 기획하라는 투표에 대해 우선 500인 이상 회원이 있었고 총학생회칙 1,2항에 근거하여 2차 학생총회 소집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1번 긴급 중운위 회의를 통해 안건 채택하고 신속히 대학 본부에 이에 대한 교섭을 돌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2차 학생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다루되, 2차 학생 총회 전까지 3가지 안건에 대해서 중운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 학생총회

무산 시 동일안건으로 총투표 시행한다는 점과. 4번. 5/7(금) 내에 의결 안건과 학생자치 전반적 논의를 가지고 2차 총회 개회한다는 것에 대해 중운위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총투표 경우 회칙 상 학생총회 열기 어려울 때 대신하여 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운위에서 논의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총 :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길 바랍니다.

간호.정 : 채팅창에 있는 4가지를 보고 든 생각, 2번 학생총회를 기획하라는 678명중에 649명이 동의했고 4번째는 322명이 참여했는데, 소집을 요구하는 주체가 누구를 잡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322명이면, 즉 500명이 안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 질문 드림.

총 : 2번 학생총회를 기획하라는 것은 총학생회장단에게 요구한 것. 4번째 투표 진행된 경위는 2번 총회를 기획하라는 것이 많은 학우분들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총학생회장이 이를 언제까지 기획할 것인지. 즉,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기획하라는 의도로 찬성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음. 또한 이를 준비하는 것은 총학생회장과 중운위이기 때문에 5/3(월)~5/7(금) 이 기간이 짧다 생각 하시면 일주일 연장을 하는 방식 등을 지금 중운위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음.

제가 추가 의견 드리자면, 교섭을 돌입한다는 것은 당장이라도 시행 가능한 것이라 생각. 학생 총투표 진행과 관련해서는 이를 시행하는 데에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학대회 안건 상정이라는 대체안을 선택하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의견 전달 드림.

사과.부 : 혹시 학생 총투표를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인지 알 수 있을지?

총 : 제가 정확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총투표는 모든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재학생이 현재 1만 7천 여분이 계시기 때문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사용된 금액 정도는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예상.

사과.부 :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든 비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총 : 총학생회장 선거 시 2천 ~ 3천 만 원 정도 발생.

사과.부 : 네 감사하다.

부총 :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 드린다. 일단 어떻게 하던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마찬가지. 총학생회 선거에 사용된 시스템은 고수준 사양으로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임. 국가 지원 온라인 보팅 시스템 기준 1만 7천 명에게 휴대폰 문자를 단 1회 보내는 것 계산했을 때 1인당 440원, 총 804만 1천 원이 소요. 아마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

경경.정 : 이클래스 대시보드 개설을 통해 시험 및 설문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총 : 저도 그 방법 생각해봤지만, 1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이클래스 투표 진행 및 취합 과정에서 오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 제가 앞서 전학대회 말씀 드린 이유가 5/17(월)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총회 무산 시 실효성 고려해서 바로 전학대회에서 논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대체안을 말씀드린 것.

??(1:24:03) : 오늘 회의 안건은 이 세 가지 투표가 실효성을 가지는지 /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현재 경경, 간호, 사과대에서 의견을 주셨음.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단과대의 판단 자체도 현재 알 수 없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 뒤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 먼저 이 부분 진행하고 그 다음 방안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듯.

총 : 다음 논의 진행을 위해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대.정 : 공대 역시 간호대 회장님 말씀 상당 부분 비슷. 실효성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생각. 어쨌든 많은 학우분들께서 요청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회의를 통해 1.2.4번은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생각. 3번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신 것 같아서 3번으로 논의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함.

총 : 대표자분들의 침묵을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자분들이 더 의견 내주셨으면 좋겠음.

동연.부 : 지금으로써는 간호대의 의견에 동의.

인문.정 : 모든 단위에서 의견 주신 것 같음.

총 :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모두 의견 주셨기 때문에. 간호대 회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 세부 사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음.

인문.정 :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총학생회장님 말대로 3천 만 원이라는 돈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맞기 때문에 3번 투표에 대해 걱정이 있고. 전학대회로 넘기자는 총학생회장님의 의견도 일리 있다고 생각. 원안 자체로 올라가서 400여 명의 학우분들이 찬성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전학대회로 넘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 경경대 회장님 말씀해주신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았는데 이것 또한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완전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학교 혹은 업체 측에 정확히 문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음.

간호.정 : 또 다시 회칙을 꺼내 이야기 하자면, 학생 총회를 열 수 없을 때 학생 총투표로 대신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보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인문.정 : 저희는 회칙의 의미보다는, 과연 학우분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전학 대회를 한다면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정도의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

사과.정 : 해당 투표 안, 학생 총회 무산 시 동일안건으로 학생 총투표를 시행한다는 투표를 발행하신 분이 저희 위원 분 중 계셔서 이야기 나눈 결과, 2차 학생 총회까지 무산 될 시 3차 대신 학생 총투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밝힘. 총투표가 아니라 전학대회 상정되길 원하는 게 학우분들의 여론이었다면 이런 결과 나오지 않았을 것. 이 투표 통해 확인 가능한 여론은 학생 총투표 여론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투표 시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있었으면 좋겠다. 문자 투표 진행을 못한다는 것은 예산 문제를 들어 불가능하다고 설명될 것 같고, 이클래스 문제는 더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

통공.정 : 개인적으로 중운위가 이 안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전학대회 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 예산 문제는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적어도 학교 측에 요청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 불가능 답변을 받으면 그 이후에 전학 대회로 넘기거나 이클래스 활용 방법 등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음. 이클래스는 아무래도 문자를 직접 보내는 것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학교 측에 총투표 시행을 요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다음 방안을 고려하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총 : 예산을 학교에서 따온다고 하셨는데, 총투표 제 80조에 보면 총투표 예산은 학생 회비로 집행함. 즉 학생 총투표의 예산을 학교로부터 따오는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로부터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반대임.

통공.정 : 제가 해당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총 : 저는 학생 총투표이기 때문에 학생자치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예산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

간호.정 :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 사과대 회장님 말씀처럼 총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중에 예산 문제는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생각. 전학대회로 바로 돌리자는 말은 아니었으며 그것 또한 학우분들의 의사를 묻고 나서 총투표 관련 진행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이 맞다 생각.

총 : 당시 총투표 진행 경위 또한, 학생총회 무산 시 총투표 진행하고 그것이 안 될 시 전학대회로 안건 상정 해달라는 학우분들 추가 설명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 회장님 말씀처럼 총회 무산 시 해당 안건 대해 학우분들의 의사를 묻고 그것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 중운위 차원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학생 총회 무산되고 자율 토의 진행이 된다면 그때 학우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음.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길 바람.

사과.부 : 2차 학생총회 무산 시 자유 토의에서 학우분들 의사 물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이클래스 관련 투표가 가능한지도 학교 측에도 문의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인문대 회장님 말씀처럼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이클래스를 통해 진행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링크만을 이클래스에 공유한 것이고, 실제로 이클래스 통해 선거가 진행된 것은 간호대뿐인 것으로 기억. 이런 사례들을 토대로 1만 7천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 측에 이야기하고 자유토의에서 이러한 부분도 함께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음.

인문.정 :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총학생회장 선거 시 이클래스를 열어 관련 홍보물을 공유했는데, 여기에 시험 및 설문까지 열 수는 없는 것인가를 물어보자는 의미였음. 총학생회장 선거가 이클래스에서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음.

간호.정 : 간호대가 선거 시 시험 및 설문을 이용하여 진행함.

인문.정 : 그럼 지금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더 해야 하는 것일지?

총 : 현재 대표자 분들 추가 의견 없으신지? 없으시다면 정리하도록 하겠음. 논의 안건 2번, 학교와 교섭을 한다는 것은 내일 중운위 정기 협의 때 안건으로 채택하여 교섭 관련 논의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학생총회 무산 시 동일 안건으로 학생 총투표를 진행한다에 대한 투표는 우선 이클래스를 통한 학생 총투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파악을 한 뒤, 학생총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2차 학생총회 후속 조치인 자유 토의를 통해 학우분들께서 이 점 이해를 해주시고 인정해주신다면 전학 대회 안건으로 돌림. 5/3~5/7 동안 세 가지 의결안건과 중앙대 학생자치 전반 논의 안건. 총 4가지 안건으로 2차 총회를 개회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대표자분들도 동의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함.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음.

4 기타안건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정 : 혹시 학생 경비 관련해서는 봐주셨는지?

총 : 저번 주 금요일에는 못 만나봤고 월요일에 찾아뵐 할 예정.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 목~금 모두 일정이 있었고 내일은 반드시 찾아 뵙도록 하겠음.

사과.정 : 지난 주 중운위 회의록 업로드 되지 않은 것 같음.

총 : 부총님이 올려주시도록 하겠음.

사과.정 : 네 알겠습니다.

총 : 추가 의견 없으신 것으로 알고 중앙운영위원회 18-1차 회의 폐회. 내일 중운위 회의에서는 학생 선거 관리와 교내 홍보물 게시 관련 규칙 대한 단운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예정. 이상으로 폐회.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